

지상진료실

매복치 (Impacted tooth)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방사선학교실

강 병 철

*매복치(impacted tooth)

매복치란 치아가 치관 방향의 이동, 즉 맹출을 방해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매복은 여러 치아에 발생하지만 하악 제3대구치에 호발한다.

매복된 하악 지치는 치은의 염증, 제2대구치 원심에 치아우식, 지치주위 농양, 낭종등을 유발시키고, 근심부의 치아를 기울게 (tilting)하여 부정교합을 야기하며, 매복 지치부위가 외력에 의하여 쉽게 골절되게 하는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치는 대개 발치하게 되며, 발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방사선사진이 필요하게 된다. 즉, (1) 제3대구치와 제2대구치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2) 제3대구치를 덮고 있는 치조골의 양을 알 수 있고, (3) 치근의 모양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 방사선사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매복지치를 중심으로 다음의 순서로 기술하려고 한다.

1. 하악 매복지치의 방사선사진

촬영법

2. 매복 지치와 하치조관의 관계
3. 매복치와 follicular space에 대하여
4. 지치 주위염의 방사선사진상

1. 하악매복지치의 촬영법

일반적인 대구치 촬영시보다 필름을 좀더 깊숙히 넣어 제3대구치를 충분히 포함시킬수 있도록 한다. 수직각은 필름과 치아가 이루는 각의 2등분선에 수직이 되게 조사한다(등각 촬영법의 경우) 수평각은 대구치 촬영시보다 각을 더주어(조금더 원심쪽에서 근심을 향하여)조사 하여야 한다. 환자의 gag reflex가 심하거나 입을 벌리기 어려우면, panoramic radiograph를 촬영할 수도 있다.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구치의 촬영을 한 후 전술한 촬영법의 방사선사진과 비교하여야 한다(즉, Clark's rule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위치관계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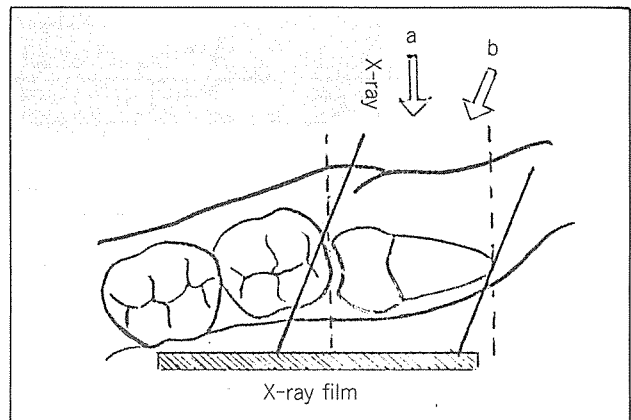


그림 1. 하악매복치의 방사선 사진상